

# 社會變動과 大學教育



尙志大學長 朴 在 佑

## I

近世 大學理念의 확립은 19세기초 독일의 훔볼트(Humboldt)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의 大學들은 사실상 形式에 치우친 大學이라고 볼 수 있다. 大學은 해결되지 않은 問題를 다루는 곳으로 전제하여 소위 象牙塔의 위치를 갖는 것으로 주장되었는데, 이러한 大學理念은 日本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産業革命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分化되기 시작하였으며 거기에 따라 大學教育의 이념에 대한 새로운 改革案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大學教育理念의 수정은 1960년대에 들어와 더욱 크게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理念의 변천은 大學 내부로부터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대학 외부의 構造的 社會變動에서 오는 압력으로부터 초래된 것으로 보여진다. 大學教育理念의 再評價를 초래했다고 생각되는 社會變動의 要因들을 여기에서 자세히 論及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開放社會와 大學教育을 생각할 수 있다. 사회가 歸屬的 社會로부터 成就的 社會로 바뀌었으며 또 機會均等이라는 民主主義理念은

教育의 機會均等を 하나의 신념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開放的 現狀은 현실적으로 競爭의 첨예화, 高學歷化, 向學熱의 上昇을 가져와 자연히 大學人口의 급격한 팽창을 초래하게 되었다. 高等教育 전문가인 트로우(Martin Trow)의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도 과거의 엘리트형에서 매스형(대학생이 동년령층의 15~50%)으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情報 및 知識産業社會와 大學教育을 생각할 수 있다. 옛날에는 土地가 가장 훌륭한 자산으로 생각되었으나 요사이에는 고도의 노우하우나 전문적 지식이 最高의 資産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을 위시한 高等教育機關은 새로운 자산의 供給處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大學教育은 이제 상품적 가치가 있는 知識과 情報의 供給源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실용적 내용을 가진 學科의 도입을 주장하는 경우는 바로 이러한 자산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平生教育과 大學教育을 생각할 수 있다. 平生教育思想의 보급과 더불어 학교교육은 오늘날 각종의 새로운 教育媒體나 社會教育機關의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학은 그것이 갖는 변화에의 不適應性和 保守性으로 말미암아 권위와 위신에 심한 영향

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對應하기 위하여 大學教育의 理念은 변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네째로, 職業社會와 大學教育을 생각할 수 있다. 과거에 있어서 대학은 學者나 聖職者, 法律家와 같은 專門的 지도자를 양성·배출하기 위한 기관이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대학은 수많은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職業人力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변모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II

大學教育의 大衆化 추세에 따라 오늘날의 대학은 많은 갈등과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대학의 傳統的 교육이념인 敎授·研究·社會奉仕라는 기능을 어떻게 配分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학이 전통적으로 추구하여 왔던 '學問의 殿堂', '지역 역할의 담당기관', '象牙塔'이라는 차원에 그대로 안주해도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로 開放되어야 할 것인가? 또 개방할 경우, 대학의 質的 수준의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量 많고 質 좋은 교육을 위한 代案은 무엇인가? 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러한 課題들은 바로 오늘날 한국 대학의 공통된 갈등현상의 표출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변동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教育內容을 대학이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를테면, 敎育課程의 開放性, 학문영역간의 相互關聯性과 獨自性, 敎育課程의 시대적·사회적 適合性, 敎養敎育(liberal education)과 職業敎育(vocational education)의 均衡性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필자는 大學教育의 大衆化 傾向에서 노출된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점의 하나로서 大學教育의 地域間 隔差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進學率, 就學率 및 제반 敎育與件이나 정책 당국의 배려가 불균형하고 또 대학교육에 대한 接近의 機會가 부족한 이른바 교육취약지구가 상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政策立案이나 執行過程에서 大學間 地域隔差 解消를 위한 노

력이 더한층 절실해지고 있다 하겠다. 어쨌든 오늘날의 대학은 위에서 언급한 제 문제점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III

社會變動에 따른 大學教育의 탄력적 대응책은 무엇일까? 大學教育의 大衆化에 따른 과제로서는 첫째로, 大學教育 機會의 실질적 확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기회가 地域間, 階層間, 男女間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高等教育을 담당하는 기관도 기존의 대학을 위시하여 다양한 형태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政策的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장래에 선진국과 같이 메스펠으로부터 유니버살형으로 대학 인구가 증가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이를 충격 없이 흡수·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大學教育의 地域間 隔差問題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여건에 있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질적 불균형의 환경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地方大學의 育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地方大學을 育成·發展시키기 위해서는 長·短期的 정책 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의 하나로는 地域圈마다 大學院 中心의 大學, 學部 中心의 大學, 敎員養成大學, 專門大學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大學敎育發展 計劃을 세워 이를 추진하는 일이다. 그리고 대학이 자기 특성 있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行·財政的 支援이 뒤따라야 한다.

社會變動에 따른 大學教育의 탄력적 대응책으로서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육의 自律性이다. 오늘날의 대학들이 중세의 대학과 같이 治外法權의 特權을 享有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지만 정책 당국은 大學敎育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함에 그치고 자세한 것은 대학의 自律에 맡겨야 된다는 주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新入生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平等主義의 理念과 秀越性의 原理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大學 나름의 다양한 선발 방식을 허용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學期制, 登錄金 制度의 伸縮性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서는 社會變動에 따라 高等教育을 담당하는 機關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또는 國立大學에 대하여 우선 순위(priority)를 두는 사고

방식이나 또는 職業教育을 담당하는 대학이나 非形式的 高等教育機關을 하급기관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려야 할 나쁜 풍조 중의 하나라고 본다. 그러한 사고 방식은 국민의 합일점(consensus) 형성을 위해서도, 또 大學教育의 均衡 있는 發展을 위해서도 결코 보탬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平生教育을 지향하는 學習社會에 있어서는 形式的 教育기관 못지 않게 非形式的 또는 無形式的 教育기관도 매우 중요한 機能과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은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